

지식 경제에 대한 오해

최근에 들어서 '지식 경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략 세 가지 측면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오래전부터 선진국 미래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자본주의 패러다임 변화론'이다. 금세기말부터 급속히 실현된 세계화 현상과 정보 통신 기술 혁명에 의해 20세기 산업 사회가 21세기에는 지식 기반 사회로 이행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 위기 이후 언론 등에서 본격 제기된 '경제 발전 모델 수정론'이다. 한국 경제가 IMF 관리 체제로 전락한 것은 과거 발전 모델이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지식 활용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의 '지식 주도 장기 경제 발전 전략론'이다. 이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한국 경제가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미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1세기라는 미지의 세기에 대한 호기심과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과제라는 당위성이 결합되어 '지식 경제'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상징적인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식 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초보 단계에 놓여 있다. 확실한 개념이나 의미가 보편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론 정립과 정책 결정이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이 들게한다. 특히 각계의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지식의 절대적 및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다. 지식은 태초부터 인류 발전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 요인이었다. 인류의 발전 역사는 바로 지식의 발달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지식의 역할이 기술 혁신에 의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지식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 ‘지식 경제론’의 근본 의미인 것이다. 지식의 절대성만 주장하여 지식 경제에 대한 냉소주의에 빠지는 것은 자칫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단기간 내에 지식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지식 성장주의의 오류이다. 지식 경제의 요체는 지식의 과다보다는 지식의 원활한 생성과 유통에 의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라는 ‘지식 유통의 선순환’에 이다. 이는 경제 사회 제도의 근본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몇 년 안에 지식 산업을 육성하고 지식 경제를 이루겠다는 개발 연대식 발상은 그 자체가 어찌면 지식 경제에 반하는 인식이라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지식의 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잘못이다. 인간 지식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길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말하는 특정 생산 방법이나 기술의 습득만(方法知)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익히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모든 것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방법지 역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된다. 기능적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지식 경제를 요령과 재주만을 중시하여 인성이 메마른 사회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